

가야와 왜의 교류

이동관, 107호 가야실 18:00~18:30

삼한시기 한반도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일본 열도의 토기인 야요이[弥生] 토기가 높은 빈도로 발견됩니다. 대체로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점부터 자료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울산-김해-사천으로 이어지는 동남해안 일대에 집중됩니다.

이후 삼국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왜계 문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세기 후반 김해 대성동을 중심으로 성장한 금관가야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 열도의 생활용기인 하지키[土師器]계 토기, 바람개비모양 동기, 통모양 동기, 청동 화살촉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키계 토기는 금관가야 권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교역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위세품인 다양한 금속제품들은 금관가야와 왜의 정치·외교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한편, 5세기 이후 금관가야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5세기 후반 왜계 문물은 한반도 중남부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이 시기 왜계 문물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한반도의 도질토기와 유사한 스에키[須惠器]계 토기, 철제 무기와 갑옷 등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거제 장목 고분, 고성 송학동 1B-1호 무덤 등 동남해안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소위 ‘왜계 돌방무덤’과 주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전방후원형 고분’의 존재입니다. 이 무덤들이 일본 열도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림1. 통모양 동기



그림2. 짧은목 항아리



그림3. 원통모양 토기

바닷길 동서양 일상 감상기

서인혁, 311호 세계도자실 18:00~18:30

동서양의 도자기들이 전시된 세계도자실에는 동양의 푸른색 중국풍 꽃무늬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고 중앙에는 로마자로 VOC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접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양이 혼재된 이 접시는 일본에서 제작된 주문 자기 접시로 중앙의 VOC 마크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의 상징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602년 3월 20일, 네덜란드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아시아 내에 20여 곳의 상관을 설치하여 바닷길을 통해 동서양 무역을 주도하였으며, 양측의 문화와 종교, 기술과 문물을 교류하며, 당대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서구세계에 알려진 계기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 1630-1692)이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하여 13년간 조선에 억류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항해일지, 『하멜표류기』가 출간되면서입니다. 네덜란드 외에도 포르투갈을 비롯하여 아랍의 무슬림 세계와 중국의 상인들이 바다를 넘어 서로를 만났습니다.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인 이븐 바투타(Ibn Battuta, 1304-1368)는 그의 견문록에서 인도에서 만났던 상인을 중국에서 재회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세계도자실에는 바다를 오가며 교류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도자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육지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바다 역시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온 중요한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는 세계도자실에서 바닷길을 항해하며 교류했던 동서양 사람들의 삶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1.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마크가 있는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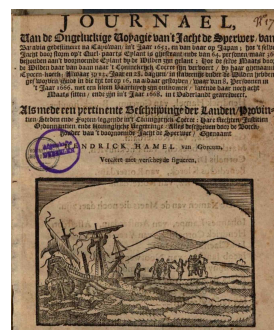


그림2. 『하멜표류기』 1668.

한국의 선사시대 옥 문화

노희숙, 103호 청동기 · 고조선실 19:00~19:30

선사시대 유물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빛깔의 옥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옥은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며 청동기시대에는 급속한 증가를 보입니다. 재질의 아름다움과 유물의 희소성을 지닌 옥은 주로 장식과 의례에 이용되었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석기시대의 옥은 출토 사례가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옥의 형태는 다양한데, 특히 둥근 모양의 귀걸이가 주목됩니다. 이 시대의 옥은 청동기시대에 비해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조개더미나 집터 등지에서 확인됩니다.

청동기시대에는 옥의 수량이 증가하며 형태와 재질에서 정형성을 보입니다. 청동기시대 옥의 형태는 크게 굽은옥[曲玉], 대롱옥[管玉], 구슬옥[丸玉] 등으로 구분되며 옥의 재료는 주로 천하석제天河石製와 벽옥제碧玉製입니다. 굽은옥은 C자형으로 굽은 몸체의 한쪽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옥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굽은옥은 주로 천하석제로 제작되었습니다. 굽은옥은 단독으로 출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청동기, 석기, 토기 등과 함께 출토됩니다. 대롱옥은 짧은 대롱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중앙에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주로 벽옥제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벽옥의 재질적인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서면 유리로 만든 대롱옥이 등장합니다. 구슬옥은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는 구슬 모양의 옥입니다. 청동기시대의 옥은 주로 고인돌, 돌널무덤, 집터 등지에서 확인됩니다. 옥이 출토된 대표적인 유적은 부여 송국리, 진주 대평리 등입니다. 특히 옥 공방터는 옥 제작에 관여하였을 전문 제작인의 등장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옥은 장식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이 있습니다. 장식적 기능은 신체를 치장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이고, 상징적 기능은 의례로서의 기능과 권위를 표현하는 위신재로서의 기능입니다.

선사시대에 등장한 옥은 시대별 특징이 있어 역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문화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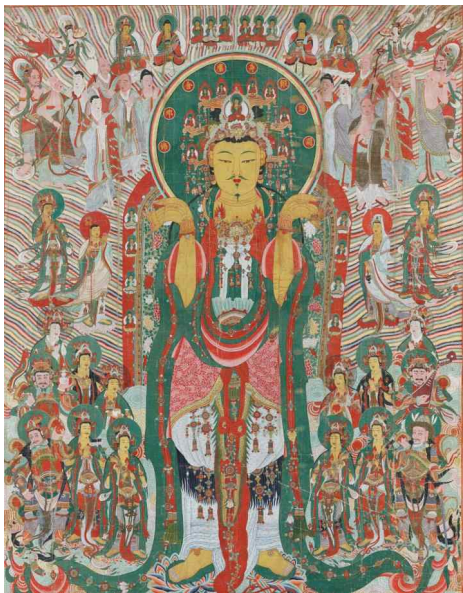


그림1. 부여 송국리 출토 굽은옥

응열 등 4명의 승려가 그린 <수덕사 괘불>

정명희, 203호 불교회화실 19:00~19:30

괘불 조성은 일반 불화의 제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양의 화구, 넓은 실내공간과 숙련된 화사가 있어야 하는 큰 불사佛事입니다. 따라서 괘불을 조성한 후 남긴 화기에는 괘불 제작에 필요한 삼베나 비단의 바탕천, 배접을 할 때 사용하는 종이와 각종 안료(眞彩·荷葉·朱紅·水土黃·三綠 등)에서부터 아교, 호분胡粉 등 다양한 화구畫具가 시주물품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에 쌀, 소금[食鹽], 장류[末醬] 등 공양물도 주요 품목이며, 괘불궤, 철물, 의식에 필요한 가마[輦], 복장물로 사용되는 거울[圓鏡]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암사 괘불(1753년)은 12인의 화사가, 통도사 괘불(1759년)은 20인의 화사가 참여한 것에 비하면 <예산 수덕사 괘불>은 응열 등 4명의 화승이 완성했습니다. 괘불을 다시 그리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에 2차, 3차에 걸쳐 중수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덕사 괘불은 1673년 조성된 이래 4차(1767년, 1780년, 1801년, 1888년)에 걸쳐 중수되었습니다. 안국사 괘불 역시 1728년 조성된 후 3차례(1792년, 1809년, 1939년)에 중수된 기록이 전합니다.

그림1. <수덕사 괘불>, 조선 1673년, 보입니다. 1664년에 조성한 신원사 괘불과는 동일한 삼베에 색, 1,071*711cm

수덕사 괘불을 그린 응열은 1650년 갑사 괘불에서는 수화승 경잠敬岑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화파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초본을 바탕으로 하면서 권속의 구성 등 세부적인 면만 변화시켰습니다. 구도는 설법인 수인을 취한 본존불을 중심으로 10位の 보살, 십대제자, 사천왕 등 기타권속을 배치했습니다. 원색에 가까운 적색, 초록, 황색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화면의 명도가 높습니다. 특히 본존의 안면과 보살의 신체에는 수토황水土黃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설법인 수인을 취하고 있는 본존의 양팔 및 신체에서 명도를 달리한 과장된 명암표현이 특징입니다. 화면에는 본존을 ‘원만보신 노사나불圓滿報身盧舍那佛’로 기록했으나 화기에는 ‘영산괘불화靈山掛佛畫’를 그렸다고 명시해 영산회상의 석가모니불 신앙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